

# 독서의 계절 가을, 책 산책 떠나요

광주사직·무등·산수도서관 전시회, 인문학 토론 등 다채 지역 동네책방들 작가 초청강연·전시·북마켓 열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끝나고 독서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가을을 맞아 독서, 책과 관련한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열린다. 시립 및 구립 공공도서관, 지역 동네서점이 펼치는 다양한 행사가 눈길을 끈다.

### ◆도서관 '독서의 달' 행사

광주사직도서관은 1일부터 30일까지 '이달의 추천도서 전시', '가을, 책에 빠지다 도서 테마 전시', '북아트센터 나만의 팝업 북 특별전시'를 개최한다. 또한 '오창현의 미술 책방' (2일)을 비롯 '가족 미니 극장 상영' (1-30일), '계정별 추천도서 목록' 배부도 한다. 문의 062-613-7787  
광주무등도서관에서는 '눈이 즐거운 팝업북 전시' (5-30일)를 비롯 1일부터 30일까지 '그림책 원화 색깔비가 내리는 숲속 나라', '테마도시 전시-가을엔 책 한 잔, 여유 한잔'이 진행된다.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창의특목 블록체임' (1일), '3D 펜! 상상을 현실로' (6일)가 펼쳐진다. 문의 062-613-7720.  
광주산수도서관에서는 강연이 눈에 띈다. 오는 7일에는 서명숙 작가가 '자유로운 여행'이란 주제로 시민을 만난다. 21일에는 철학박사 박해용의 '소설에서 찾은 인문학 독서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62-613-7812.  
동구는 계림포남도서관(계림1동 주



곽재구 시인



신이현 작가



지난해 산수도서관에서 진행된 '독서의 달' 행사 장면.

〈산수도서관 제공〉

민센터 4층)에서 독서의 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내 마음대로 동화, 도서 각색하기' (7일), '나만의 석고 방향제 만들기' (13일), '인형극 놀이' (19일) 등이 예정돼 있다. 문의 062-608-3920.  
남구는 구립 도서관인 문화정보도서관에서는 '향기가 있는 서울립' 주제로 시극 및 시낭송회(8일)가 열린다. 푸른길도서관에는 한달간 '돌 씹어 먹는 아이' 그림책 원화 전시전이 펼쳐지며 청소년도서관에서는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1일) 인형극이 진행된다. 문의 062-607-2522  
북구 일곡도서관은 문화체험 위주로 행사가 진행된다. '우리야이 노 발달에 따른 자녀 양육법' (11일), '북스타트 부모교육' (20일), '내 손으로 만드는 그림책 속 주인공' (10일)이 펼쳐진다. 운암도서관은 '반

짝짝짝 컵라이트 만들기' (3일), '빛그림 동화상영' (12일)을 진행한다. 문의 062-410-6895, 062-410-6957.  
◆작은 책방, 초청강연 및 릴레이산책  
광주의 작은 서점들로 꾸려진 비영리단체 '오늘산책'은 1일부터 8일까지 북스페셜 '오늘산책'을 개최한다. 4회째를 맞은 올해는 '매일산책'과 '도시산책' 두 개의 색으로 구성된다. 이번 행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인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 지원으로 이뤄졌다.  
'매일산책'은 문학주간(1-7일)에 광주와 전남, 전북의 독립서점 10곳과 공공 시설 2곳에서 릴레이로 여는 작가 초청 프로그램이다. 광주에서는 김형중(마라마라크), 오은(책과생활), 신유목(살지대실협

학교), 최유빈(삼삼한책방), 최정화(살지대실협), 김복희-양선형(검은책방한책방), 신이현(지음책방) 등 시인과 소설가 그리고 평론가 등의 강연 및 낭독회가 예정돼 있다. 전남에서는 곽재구(순천-심다), 진형중(여수-책방 어느날), 조기준(완도-완도살롱), 최정진(여수-동동책방) 등 작가와 시인 등 강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다른 색선 '도시산책'은 8일 낮 12시부터 6시까지 아시아문화전당 야외광장 캐노피(장동교차로 방면)에서 열린다. 지역 독립서점 광주 13곳(책과생활, 숲, 검은책방한책방, 소년의 서, 지음책방, 연지책방, 공백 등)과 전남 3곳(심다(순천), 동동책방, 책방 어느날(여수), 완도살롱(완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시와 북마켓이 열린다. 문의 010-2507-9231.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월요일 밤엔 재즈 콘서트로 감성충전을 빛고을시민문화관 9월 3일 월요일콘서트 하반기 첫 무대



애드뮤직컴퍼니 공연 모습.

〈광주문화재단 제공〉

매주 월요일 밤, 월요일콘서트로 감성충전을! 빛고을시민문화관 월요일콘서트 하반기 첫 무대가 열린다.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은 오는 9월 3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애드뮤직컴퍼니의 '헬로! 디시랜드(Hello! Dixieland)' 재즈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에디트 피아프의 'La Vie En Rose', 넷 킹 콜의 'Orange Colored Sky' 등 전통적인 재즈스타일의 보컬곡과 디시랜드 스타일의 재즈스탠다드 'Have You Met Miss Jones, BirdLand' 등을 공연한다. 애드뮤직컴퍼니는 광주에서 활동하는 재즈뮤지션들이 재즈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만든 음악단체. 올해는 '뚜비뚜뵘 재즈학교' 및 '공동 JAZZ SALON'을 기획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앨범 'Catch The Rainbow'를 발매해 호평을 받았다. 이날 공연에는 김수근(기타, 음악감독), 박수지(피아노), 김은영(보컬), 신지용(드럼), 이완(베이스), 인터스윙(혼성그룹, 댄스) 등이 출연한다.  
하반기 공연은 9월 3일 시작해 11월 12일까지 이어진다. 입장료 초대(선착순 100명). 전화예약 062-670-794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양림동·광주천변 무대 광주 독립투사들의 삶 그려

손예빈 작가 장편 '호랑가시나무 언덕' 펴내...내달 1일 출판회

광주의 독립운동가들과 일본 장교와의 문명적인 만남, 한일청년들의 고뇌와 갈등을 그린 이색적인 소설이 나와 눈길을 끈다.  
손예빈 작가가 펴낸 장편 '호랑가시나무 언덕' (은소래)은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광주의 독립운동가들과 일본 장교들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한 소설이다. 원래 호랑가시나무 언덕은 광주를 찾아온 선교사들의 사택이 들어선 곳으로 희생과 헌신을 상징한다.  
손예빈은 2006년 '약단지름 품에 안고'로 아동문예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2016년 '나주 암암 설화 이야기'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모전에 당선됐다.



소설은 1941년 당시 양림동과 수기동 등을 중심으로 근대 문화가 유입되고 민족계몽운동과 항일투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당대 스포츠 스타였던 김후욱과 주봉식은 청년들에게 체육을 가르치며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광주의 대부호였던 최상현은 양림동 대저택 한쪽에 일본인과 조선인들의 사교의 장으로 요정을 만들어 운영하며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한다.  
이처럼 소설은 조선인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며 그들과 동고동락했던 오방 최홍중, 강순명, 이현필, 김준호를 비롯 여주인공 정연주의 이야기가 양림동과 광주천변 일대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손예빈 작가는 "암울한 시대 상황에 굴하지 않고 굳세고 의연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던 이들과 독립투사들의 삶을 소설을 통해 기리고 싶은 마음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열심히 쓴다고 하겠지만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과 울컥은 뜻을 작품을 통해 온전히 표현해 내지 못한 것 같아 송구한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소설 출판기념회가 오는 9월1일 오후 4시 양림동 헌트리전교회 사택에서 열린다. 문의 010-2634-880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시민인문학 59기 강좌 9월 3일~30일

실천인문학을 지향하는 광주시민인문학이 59기 정기강좌를 마련했다.  
9월 3일부터 30일까지(오후 7시 30분)까지 전남대 정문 앞 인문학 카페 노블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인문학, 철학, 영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강좌와 토론이 이어진다.  
월요일 양성평등담당 시간에는 명혜영 교수가 '페미니즘,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이다!'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수요일에는 철학스터디 강좌로 '몸으로서의 정신-베르그송 '물질과 기억''이 주제다. 목요일은 신우진 씨가 '묵묵히 책을 읽자!-십인십책'을 이야기한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검색. 문의 010-4624-1201, 010-9949-855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 에펠드 플루트 앙상블 정기연주회

### 9월 1일 유스퀘어문화관

광주 에펠드 플루트 앙상블 제12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9월1일 오후 7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플루티스트 이현경씨가 감독과 지휘를 맡은 이번 공연에서는 부산 나눈 플루트가 함께 연주한다. USP 오케스트라 플루트 수석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장재호씨가 객원 지휘로 참여한다.  
연주회 레퍼토리는 루츠, 비아, 히로세 등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지만 동·서양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작곡가들의 작품을 모았다. 클라크, 슈만트너 등의 음악을 광주지역에서 처음 선보인다. 케리 비아가 작곡한 '아리랑', '금잔디', '새야새야' 등 한국 민요도 광주 초연한다. 바히르 챔버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첼리스트 박문경을 초청해 파가니니 '룻시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협연한다.  
에펠드 플루트 앙상블은 2008년 창단한 뒤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음악회는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문의 010-6331-6834.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이현경 플루티스트 박문경 첼리스트

##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

# 방수

##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